

이기는 삶

21일의 법칙

우리 뇌는 충분히 반복되어 정보전달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것에는 저항(抵抗)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는 21일간 의식적으로 노력(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21일은 생각이 대뇌피질에서 뇌간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생각이 뇌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심장이 시키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

21일은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

21일 법칙은 무엇이든 21일 동안 계속 하면 습관이 된다는 법칙으로 승리제단(勝利祭壇)뿐 아니라 예일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21일간 소원을 빌며 자기 도장을 찍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기운만을 불러들

린다. 이는 일종의 전통과 유사하다. 승리제단에 처음 나오면 21일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한다. 승리제단은 매일 예배를 드린다. 6,000년 묵은 죄의 때를 매일 조금씩 벗겨내는 것이다. 의심이 나도 꼭 잡고 21일을 알아보는 동안 조금씩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차츰 영생(永生)이 믿어지고 영생이 나에게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된 ‘육은 죽고 영이 천당에 간다’는 영육분리(靈肉一分理)의 고정관념이 점차 영육일체(靈肉一體)로 납득이 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게 된다. “이 바보가 왜 여태 이것을 깨닫지 못했단가?”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새롭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나의 가슴에 스며들어 사막 같은

심령(心靈)에 생명수가 되어 흐르게 되는 것이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오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입에서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나를 이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感謝)하고 먼저 나온 신앙(信仰)의 형제들이 너무나 고맙고 정답게 느껴진다.

이후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빨리 이 진리를 전해서 저들도 이 진리에 동참하게 해야겠다는 사명감(使命感)이 불타오른다. 이것이 바로 초심(初心)이다. 처음 승리제단에 나와서 주님을 알고 너무나 감격했던 그 마음으로 자유율법(自由律法)을 지키는 생활을 하루 24시간, 21일 동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21일간만 자유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약 5년 동안 밀실에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1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일 동안 온전히 자유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3일 만에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떨어지고, 또 어떨 때는 20일째 되는 날 떨어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을 계속하여 마침내 자유율법을 온전히 21일을 지키니 ‘이겼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21일 동안 제대로 율법을 지켜보자

이긴자 조희성님의 말씀이다. 모든 위대함은 꾸준함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하루 24시간, 21일 동안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의 의식을 꽂꽂 묶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로 돌입해 들어가자.*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면의 빛이나 말씀의 존재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최제우가 처음 한울님을 접했을 때 외유점령지기(外有接靈之氣) 즉, 몸 밖의 신령한 영의 기운과 접하는 물리적인 접촉의 방식으로 한울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나 이후 내유강화지교(內有降話之敎) 즉, 내 안에서 스스로 가르치는 말씀의 한울님, 나 자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좌절하게 된 것처럼 말합니다.

제단의 경우도 빛의 형태의 이슬 성신(神)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분신(分身)으로 나를 따라다니던 이긴자가 빛으로 화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는 등의 체험을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단 고유의 방식으로 구현되는 시천주(侍天主)이겠지요.

동학(東學)에도 심고(心告)라고 해서 먼저 한울님께 고(告)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율이 있습니다. 「내수도문(內修道文)」에 따르면 내 안에 모셔져 있는 한울님에게 ‘일어납니다.’, ‘잡니다.’, ‘방아 찧으러 갑니다.’하는 식으로 부모에게 고하듯 일거수일투족 일일이 고하러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자성(自性)에게 고하고 순종하는 이 공부는 작금의 금운(金運)의 시대에도 그대로 자유율법으로서 합당하며 온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운(水雲)의 하나님이 금운(金運)에 와서 완성되었으니 금운(金運)의 하나님이 바로 수운(水雲)의 하나님입니다. 이구동성(異口同聲), 입은 다르나 같은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니 오히려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해의 편이상 내 밖의 하나님과 내 안의 자성(自性)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으나 지난 꿈의 작은 꽃나무가 거대한 나무와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었듯 불이불이(不二不異), 내 밖의 하나님과 내 안의 하나님(자성)이 다를 리도, 둘 일리도 없습니다. 인간 나, 마귀 나의 눈으로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같은 부처님’이 자성(自性)으로 드러난 자성이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같고도 다르며, 다르지만 같습니다.

③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층. 이 층에서는 내 안의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타자(他者)로서가 아니고 나를 대신(代身)해 나 자신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뿐더러 나라는 의식, 주체 의식의 자리가 기존의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가 주체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율법 중 ‘말김’에 대

꿈에 대하여...〈12〉

공부, 그 3개의 층-1편

특불을 신앙하는 종파로서 건불관(見佛觀) 관법(觀法) 13종이라는 고유의 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을 명상하는 제1단계 일상관(日想觀)으로부터 호수면을 관(觀)하는 제2단계 수상관(水想觀)을 거쳐 마지막 제13단계가 진신관(眞身觀)으로서 삼매 상태에서 실제 생미특부처님을 관(觀)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기신 하나님, 이긴자의 출현으로 정토종(淨土宗)의 진신관(眞身觀)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지요.

선종(禪宗)인 법안종(法眼宗) 5대 조사(祖師)이자 연종(蓮宗:정토종) 6대 조사로서 양대 종파에서 높이 존송 받은 영명연수(永明延壽) 선사도 “참선 수행은 없더라도 부처님을 일심으로 생각하고 관(觀)하는 염불(念佛)수행만 있으면 만(萬) 사람이 닦아 만(萬) 사람이 모두 가나니, 단지 가서 아미타불을 뵈기만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 걱정 하리오”라 했을 정도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당기는 공부의 의미와 힘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긴자의 말씀에 따르면 눈과 귀와 생각 자체가 신(神)이 드나드는 통로이며 따라서 이기신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바라보면 눈길, 마음 길을 통해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내 안에 좌절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는 자유율법은 이러한 관법(觀法) 계열의 공부의 완성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층의 나는 아직 마귀 중,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당사자입니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커질수록 마귀 나에 대한 염리심(厭離心), 즉 나를 미워하는 마음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바로 하나님을 가두고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기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 앞서 내 마귀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당기는 것이 텃밭에 씨뿌리기라면 나라는 존재를 미워하고 죽이는 과정은 잡초 뽑기에 해당합니다.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생각과 나의 감정에 일일이 반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대생활’이라는 자유율법이 자연스레 등장합니다. 평소의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과 감정이 모두

마귀 신의 소산임을 알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감정 자체가 마귀 신이므로 일일이 이름을 붙여 박멸소탕(撲滅掃蕩)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과거가 생각나면 뒤 돌아보는 음란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미워하는 마음이 일면 ‘살인형기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나라는 마귀에 대한 염리심(厭離心), 미움은 장작과 기름처럼 하나로 불타오릅니다. 나라는 존재를 미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바라보기, 사모와 반대 생활은 한 짝을 이루는 자유율법입니다.

② 다음은 하나님의 신을 당겨 내 안에 모시는 단계입니다.

이는 동학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執)에서 시천주(侍天主) 해당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天主는 하나님, 侍는 모실 시(侍)이니 시천주(侍天主)는 내 바깥의 하나님, 타자(他者)였던 하나님(天主)을 내 안에 모시는(侍)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으나 그 하나님이나 자신이 아닌 타자(他者)인, 조금은 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태아가 숨 쉬고 있으나 언젠가 내 밖으로 나와 독립할 그 아기가 나 자신은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신과 신의 대면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만 엄밀히는 여전히 ‘마귀 신인 체로 내 안의 하나님의 신을 알아보고 만나는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바라보고 당기는 단계였다면 그 신을 다시 내 안으로 끌어들이 내 자성(自性)으로 대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투사(投射)를 거두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것을 밖으로 투사했다가 다시 되돌려 내 안에서 발견하는 과정 즉, 회광반조(迴光返照)의 과정입니다. 내가 모시고 섬기던 스승이나 부처님이 실은 내 안의 자성, 내 ‘속 하나님’의 투영이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제 외부에 투사된 육화(肉化)된 형태의 신뿐만 아니라 내 안에 좌절한 영적 존재로서의 신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형체를 가진 존재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라! Have the nature of God!

본성이란 말은 존재(대상)의 타고난 속성을 의미합니다.

▶ Nature means the innate property of being.

하나님의 본성은 성별이 없는 중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The nature of God is neutral and sexless, for God is not a being such as a man or woman.

마귀의 본성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 The nature of Satan is “positive and negative.”

음과 양의 성질은 마귀의 필수적인 두가지 특징입니다.

▶ “Plus and minus” are the two essential elements of Satan.

하나님의 나라(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 There can be neither man nor woman in heaven.

오직 하나님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 Only God can live in Heaven, for Heaven is the Kingdom of God.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 Therefore, every human being must be a God to go to Heaven.

하루빨리 음양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 We must abandon the character of yin and yang as soon as possible and have the nature of God.*

by Alice

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김은 보통 내 걱정, 근심 등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나는 그저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식의 말김으로 시작됩니다. 인도의 전통에서라면 행위의 동기나 결과에 구애되지 않는 순수한 무집착의 행위로 신에게 헌신하는 카르마 요가(業)가 이와 비슷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의심 없이 엄마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뛰어 노는 것과도 같은 말김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나의 관계에 가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여전히 기존의 나인 채 남인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는 식입니다. 선(禪)불교의 방하축(放下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것을 백날 내려놓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놈’, ‘나란 놈’ 자체를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말김은 내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 나라는 의식의 자리, 마귀 내가 차지하고 있던 주체영 자리를 넘기는 말김입니다.

이 말김은 제단 기도문의 모든 기도 앞에 꼭 따라붙는 ‘오셔서 대신(代身)의 말김입니다.

대신(代身)입니다. 대신할 데에 몸 身, 말 그대로 몸 바꾸지요, 존재 바꾸지요, 주체영 바꾸기이며, ‘나 자리’ 바꾸기입니다.

대신(代身)의 말김은 마귀인 내가 하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代身)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오셔

서, 나 대신(代身) 친히 보고 친히 생각하고 친히 말하도록 간절히 기원하며 움직입니다.

하나님, 내 자성(自性)에게 묻고 그 응답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순종 자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하시게 하는 것이지요. 차이를 아시겠지요? 내가 고(告)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순종과 행위의 당사자를 하나님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자성(自性)의 응답을 들었으니 그래!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식이 아니라 그 고(告)함까지, 기도까지, 응답을 듣고 행하는 순종 자체까지를 자성(自性)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 대신(代身)하게 하는 투철함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 등 내 ‘것’을 맡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그 생각을 하는 자, 말을 하는 자, 행위를 하는 자(者) 자체를 교체(交替)하는 일종의 ‘신수교체’가 말김입니다. 나라는 의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바뀌는 것이며 주체영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평생을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자유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으나, 밀실에 들어가서 말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자유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자유율법을 지키려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대신(代身)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기 시작하니 비로소 온전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긴자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김필 / kimtaek8@nate.com